

2026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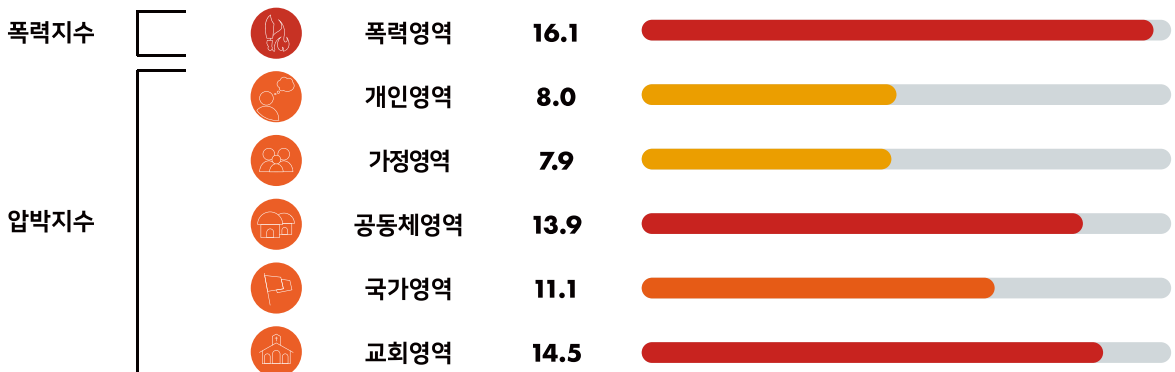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기독교 박해지수
29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콩고민주공화국(DRC) 동부, 특히 북키부주(North Kivu)와 이투리주(Ituri), 남키부주(South Kivu)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민주군사동맹(ADF)은 학살과 납치, 교회 파괴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공격해 왔다. 생존자들은 이러한 잔혹 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었다고 증언한다.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M23 반군의 재부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M23이 점령 지역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주민 이주가 발생했고, 반대 의견도 억압되었다. 이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납치되거나 실종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슬람교나 전통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사회적 배척과 개종 철회 압력에 시달리며, 상속과 공동체 생활에서도 배제된다. 전통 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경우 협박을 받는 일도 흔하다. 한편, 국가 부패를 비판하거나 헌정 질서를 옹호하는 가톨릭 및 개신교 지도자들은 위협과 감시, 괴롭힘에 직면한다. 교회 활동이 방해받고 성직자들이 공개적으로 비방을 당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조직적으로 억압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국가 정보

지도자 :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인구 : 109,076,000명
기독교인 수 : 104,159,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이원집정부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04,159,000	95.5
민속 종교	2,467,000	2.3
이슬람	1,491,000	1.4
기타	959,000	0.8
	합계	100%

출처²

콩고민주공화국은 수많은 무장 반군 세력이 얽힌 분쟁을 50년 넘게 겪어 왔다. 취약한 국가 제도와 불안정한 법치로 인해 납치, 살해, 자의적 구금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처벌받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출범이 지연됐던 신정부는 주디트 수민와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는 오랜 지연 끝에 2024년 6월 11일 마침내 취임 선서를 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실한 경제 운영과 인플레이션, 부패 문제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2025년 보고서에서도 콩고민주공화국을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하고 100점 만점에 18점을 부여했다. 이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10월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특히 북키부주와 이투리주에서는 폭력이 현저히 증가했다.

2024년 12월 단 일주일 동안 ADF/IS의 공격으로 기독교인 민간인과 친정부 무장대원을 포함해 최소 140명이 사망했다(BBC Monitoring, 2025년 1월 3일). 이러한 잔혹한 공격에는 기독교 공동체를 명백한 표적으로 삼은 집단 학살, 마을 방화, 납치, 교회 폭파 등이 포함된다. IS 연계 선전물에서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우선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5년 3월 28일 유럽의회는 기독교인을 겨냥한 ADF의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ADF와 이슬람국가(IS)의 연계, 기독교인을 다수 포함한 수천 명의 민간인을 살해해 온 전력, 그리고 광물 자원이 풍부한 북키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 역할을 지적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책임 규명, 유엔 콩고민주공화국 안정화임무단(MONUSCO)에 대한 지원 강화,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우간다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슈자 작전(Operation Shujaa)'도 포함된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반군 단체 3월 23일 운동(M23)은 고마 일대에서 점령 지역을 확대했다(The Independent, 2025년 7월 4일). M23의 세력 확대로 인도적 지원 접근과 시민 생활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M23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비반적인 인사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실종되고, 위협을 받

¹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벼운 반대 의견만 표명해도 실종될 수 있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증언한다.

여성과 소녀들은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졌으며, 남성과 소년들은 강제 징집과 납치, 처형의 위험에 처해 있다. 목회자와 자신의 신앙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신자들은 지하디스트 세력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특히 북키부주와 이투리주의 기독교 공동체는 주로 무장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투리주에서는 ADF의 폭력적인 공격이 특히 잔혹하며, 교회가 폭탄 공격의 표적이 되고 기독교인 마을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납치되거나 학살당하고 있다. 북키부주의 기독교인들은 ADF뿐만 아니라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M23 반군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다. M23은 협박과 강제 실종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한다. 남키부주도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 전반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슬람교 또는 전통 신앙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공동체의 강한 압박과 배척을 겪고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로마가톨릭과 개신교 공동체는 교회 공격과 성직자 협박을 비롯해 무장단체에 의한 각종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때는 교회 시설이 빈번하게 약탈당한다. 수도 킌사사에서 카사이주와 북키부주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수도원, 가톨릭 학교가 민병대와 무장한 청년들에 의해 파손되고 훼손되어 왔다.

기독교 개종자

특히 북키부주에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박해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사회적 압박을 받는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이나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일부 지역에서 적대와 반발에 직면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주의적 억압

이러한 억압은 북키부주와 이투리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들, 특히 2018년부터 이슬람국가와 공식적으로 연계된 ADF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공포 작전을 벌여 왔다. 이 단체들은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 개종자들을 노골적으로 표적으로 삼는다. 무장세력뿐만 아니라 극단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도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해 신자들의 일상 생활을 위험하게 만든다. 기독교인 마을이 습격당하고 목회자들이 납치되며 교회 재산이 파괴되는 일은 기독교의 존재를 말살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행된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콩고민주공화국은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 부패 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163위(20/100점)를 기록했으며, 정부와 기업 부문 전반에 걸친 구조적 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청렴성과 투명성을 옹호하거나 청렴성과 투명성을 옹호하거나 각종 부당행위를 규탄하는 기독교인들, 특히 시민사회와 교회 지도부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괴롭힘과 감시, 때로는 신체적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법 집행 및 사법 체계는 여전히 크게 무력화되어 있다.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기독교계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억압되어 왔다. 조제프 카빌라 집권 당시 교회가 주도한 시위는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2018년 12월 선출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진전은 제한적이었다. 보안군에 대한 통

제는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부패나 반군의 폭력을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학대에 노출되고 있다.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저명한 성직자들은 위협을 받는다.

민족·종교적 적대감과 결합된 씨족 억압

키상가니(Kisangani), 카사이(Kasai), 북키부 등의 지역에서는 박해가 민족적 긴장과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 유력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조장하는 토착 신앙 전통이나 혼혈주의 종파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독교 개종자와 소수 교단이 특히 취약하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이슬람 무장단체 ADF와 기타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 강간, 성노예화, 인신매매, 강제결혼의 위협에 직면한다. 12세에 불과한 소녀들까지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며, 학대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생존자들은 흔히 트라우마와 수치심을 겪고 가족이나 지역 사회로부터 배척당한다. 분쟁과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로 인해 여성들의 삶은 극도로 위험해졌으며, 많은 여성이 강간, 납치, 살해를 당했다. 정부군 역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압박 요인:

- 납치
- 기독교 종교 자료, 가르침 및 의식에 대한 접근 차단
- 자녀 양육권 박탈
- 상속권·재산권 박탈
- 강제이혼
- 강제결혼
- 인신매매
- 폭력 - 사망
- 폭력 - 신체적
- 폭력 - 정신적
- 폭력 - 성적

남성

기독교인 남성들은 강제 징집, 납치, 고문, 처형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신체 훼손이나 강제 노동을 당하며,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가족들이 장기적인 빈곤에 빠진다. 교회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더 큰 위협에 직면한다. 남성들은 고용에서도 차별을 겪으며, 이는 가정의 안정을 약화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거나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하시킨다.

남성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압박 요인:

- 납치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인신매매
- 폭력 - 사망
- 폭력 - 신체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29	72
2025	35	70
2024	41	67
2023	37	67
2022	40	66

콩고민주공화국은 WWL 2026에서 72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WWL 2025보다 2점 높은 수치로, 주로 지역 사회 영역과 국가 영역에서 압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특히 국가의 통제력이 약한 지역에서 지방 당국과 지역 사회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간섭에 직면한다. 동부에서는 이슬람 무장단체 ADF가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인 마을을 공격하고, 남성과 여성을 납치하며, 교회를 불태우고, 살해 행위를 자행해 지역 전체를 불안정에 빠뜨린다.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되어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표적 협박을 받는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협과 관료적 장벽, 무장단체의 폭력, 국가의 미흡한 보호는 이 나라가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와 기독교인 공동체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1월:** ADF 무장대원의 공격으로 북키부주 마비시오(Mabisio) 마을에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다른 주민들이 납치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기독교인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아 온 ADF의 오랜 공격 양상과 일치한다(AP News, 2024년 11월 16일).
- **2025년 2월:** 일부에서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2025년 2월 북키부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인 약 70명이 마예바(Mayeba) 마을에서 납치된 뒤 카상가(Kasanga)의 한 교회에서 참수된 채 발견되었다. 이 학살은 오랫동안 이 지역의 기독교인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아 온 ADF의 소행으로 지목되었다(ACN International, 2025년 2월 21일).
- **2025년 7월:** 2025년 7월 27일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코만다(Komanda)에서 ADF 전투원들이 자정 철야예배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을 공격해 38명 이상이 사망했다. 유엔과 콩고민주공화국 군에 따르면 인근 상점들도 약탈당한 뒤 불에 탔다(BBC News, 2025년 7월 27~28일).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강간 및/또는 성적 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수	살해된 기독교인 수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국내 강제 이주된 기독교인 수
2026	1,000*	339	100*	10,000*
2025	100*	355	100*	10,0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ADF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걸어로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십자가나 기타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한 기독교인들은 발견되는 즉시 살해될 위험이 있다. 동료 신자들과 단순히 모이는 것만으로도 납치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가령 가톨릭교회에서 복음주의 교회로 옮긴 사람처럼 기독교 교단을 바꾼 이들조차 가족과 이웃의 반발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조상 의례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가정 영역

이슬람 성전주의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 기독교인 가정은 끊임없는 위협에 놓여 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납치되거나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강제로 배우게 될 수 있다. 특히 이슬람교를 떠났거나 기독교 교단을 옮긴 개종자들은 상속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강제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 일부 경우에는 강제이혼이 처벌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다른 경우에는 개종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계속 받아들일 경우 이슬람 성전주의 세력이 지역 사회 전체에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강제이혼이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영역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기독교인들의 지역 사회 생활은 불안과 고립으로 점철되어 있다. 기독교인이 소유한 사업체가 약탈되거나 파괴되어 가족들이 빈곤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소녀들은 납치와 강제결혼, 계속되는 폭력의 위험 때문에 이동하거나 교육받는 것조차 위험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가 여전히 폐쇄되어 있거나 안전하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웃들이 기독교인들을 면밀히 감시하며, 이들을 무장세력이나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납치되거나 암살당할 위험이 있어 많은 기독교인이 침묵과 사회적 고립을 강요받는다.

국가 영역

불의와 부패, 폭력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기독교인들은 흔히 큰 신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무장단체와 정

부 관계자 모두 보복을 목적으로 이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교회 영역

콩고민주공화국의 교회는 비국가 무장세력과 중앙정부 양측으로부터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동부 지역에서 ADF는 교회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성직자들을 살해했으며, 교인 공동체 전체를 강제로 이주시켰다. 영적 지도자이자 시민사회 지도자로 여겨지는 목회자들은 주요 표적이 된다.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설교와 종교 집회를 감시하며, 정치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평화와 선거 개혁을 옹호하는 교회를 탄압한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인가 발급을 거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교회가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채 폐쇄 위험에 놓여 있다. 국가 당국의 탄압과 이슬람 성전주의 세력의 폭력이 맞물리면서 교회 생활은 불안정하고 흔히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콩고민주공화국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콩고민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배척당하고 이혼 및 상속권 박탈의 위협을 받는다(ICCPR 제18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납치된 뒤 무슬림 남성과 강제결혼을 당할 위험에 처한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 기독교인들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ICCPR 제2조)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이슬람 무장단체 구성원들에게 살해당한다(ICCPR 제6조 제1항)

콩고민주공화국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콩고민주공화국 내 무슬림을 비롯한 종교적 소수자의 수는 흔히 논쟁의 대상이 된다. 콩고 최고이슬람위원회 (High Islamic Council of Congo)는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한다고 추산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수치에 이의를 제기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의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과 동일한 혜택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픈도어의 콩고민주공화국 사역

콩고민주공화국 교회에 대한 오픈도어의 지원은 2016년에 시작되었다. 오픈도어는 협력 기관 및 교회와 함께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오픈도어는 콩고 교회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굳건히 맞설 수 있도록 실질적·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박해 대비 훈련
- 제자훈련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